

제주전통민가의 공간배치를 통해 본 제주도민의 종교심에 관한 연구*

김 영 주 **

국문요약

주거형태의 구성은 단순히 물리적 현상에만 국한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족관계와 사회구조 그리고 신화와 종교 등 모든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작용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전통민가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그 사회의 저변을 형성하던 민초들의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주거형태이므로 당시의 문화현상을 잘 보여준다.

제주전통민가의 공간배치는 제주신화의 의미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신화나 설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만의 독특한 민간신앙을 형성하였으며, 전통민가의 공간배치 속에서 민간신앙을 통한 신과 인간의 관계맺음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제주전통민가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주거 공간으로서 민가라는 공간에 거주하는 거주인일 뿐만 아니라 신화와 신앙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공간성과 신앙심 사이에서 소통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제주전통민가에 종교적 의미부여가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제주전통민가가 가지는 특징으로서, 내륙지방의 전통주택이 임원경제지나 택리지 등의 조영원리나 성리학의 규범에 따라 공간구성이 이루어지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공간조영원리보다는 신화와 민간신앙이라는 의미구조에 따라 공간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제주만의 독자성을 발견할 수 있다.

신화는 인간으로서 겪는 곤경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현대인들이 원하는 ‘치유’에 가장 적합한 것이 ‘신화’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전통민가에서 발견되는 신화적 요소와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인간과 소통하며 유기적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작업은 문화의 보고로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토양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8017804). 또한 제38차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제주 전통민가의 공간배치를 통해 본 제주도민의 종교심에 관한 연구」를 보완하여 진행한 논문임.

** 대전대학교 종교문화학과 조교수

주제어 제주전통민가, 민간신앙, 문전본풀이, 신화, 종교심

〈목차〉

1. 들어가며
2. 신화의 섬 제주도, 그리고 제주문화
3. 경험공간으로서의 전통민가와 주거문화
4. 기억공간으로서의 신화와 제주도민의 종교심
5. 나가며

1. 들어가며

주어진 환경은 인간들로 하여금 그들만의 사상과 문화를 만들게 한다. 제주도는 한반도의 가장 남단에 위치한 절해고도(絶海孤島)의 화산섬이다. 제주도는 절해고도가 지니는 폐쇄성뿐만 아니라 비·바람·척박한 토양 등 불리한 생활 환경, 그리고 오랜 세월 중앙으로부터 지속된 수탈과 왜구의 잦은 침입 등으로 제주만의 사유체제와 주거문화를 형성하였다. 제주도가 지니는 자연환경이 신화와 신앙을 만들었듯이 제주도의 척박한 자연환경은 내륙지방과는 또 다른 형식의 건축양식을 만들게 된 것이다. 제주도만이 지니는 절해고도의 특수성이 상대적으로 문화적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한 결과이다.

신화가 살아 숨 쉬는 제주도에는 인간과 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꿈꿨던 원리를 다각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전통민가를 통해 신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확인해 보는 작업일 것이다.

전통주거건축은 집을 지을 때, 자연의 지형에 따라 지음으로서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자연에 순응 내지 조화하려는 자연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신적 요소들에 대한 경외감이 내재되어 있다. 전통주거에는 신과 인간의 관계설정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제주전통민가는 지리적 여건과 자연환경, 민간신앙, 생활양식 등의 영향 등으로 내륙지방과는 확연히 다른 주거양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이라도 하듯 전통민가와 관련해서는 민가의 현상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¹⁾ 물론 제주의 신화와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한 의미론적 연구²⁾가 있었지만 이 또한 공간의 의미에 주목한 것으로 제주의 문화적 특성을 한계 짓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종교적인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던 제주도민의 종교심에 주목하여 제주전통민가의 공간배치가 단순히 물리적 편의를 위한 공간배치뿐만 아니라 민가라는 공간을 통해 신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형성을 위한 종교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역사의 전승과정에서 형성된 제주도민의 독자적인 종교심은 제주도민의 인식체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3차례에 걸친 제주도 현지답사와 건축학, 종교학, 신화학, 심리학의 학제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졌다. 필자는 2015년 10월 21-24일에 삼성혈, 제주돌문화공원, 제주신화역사공원,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성읍민속마을, 제주민속촌 등을 답사하였고, 2016년 1월 4-9일에 영실, 송당마을, 토산마을, 성읍민속마을, 제주민속촌, 모슬포 일대를 중심으로 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6년 4월 22-25일까지 제주신화역사공원, 제주돌문화공원,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민속촌 등을 답

- 1) 정영철·이해성, 『제주도 전통민가의 형성과 특징에 관한 연구: 남방적 요소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7권3호<통권35호>, 대한건축학회, 1991.; 박희용 외 3, 『제주 전통주거의 건축특성 연구: 성읍민속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권2호, 한국농촌건축학회, 1999.; 이창희·박정근, 『제주지역 전통주거건축의 자연친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6권2호<통권53호>, 한국농촌건축학회, 2014.
- 2) 정영철·이해성, 『무속의례를 통해 본 제주도전통주거의 공간구조 및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1호<통권33호>, 대한건축학회, 1991.; 정영철·이해성, 『통과의례로 본 제주도전통주거공간의 경계 및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2호<통권34호>, 대한건축학회, 1991.; 김형준,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전통주택의 경계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3권 제3호<통권221호>, 대한건축학회, 2007.

사하고 원주민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신화의 섬 제주도, 그리고 제주문화

제주는 구비문학이 풍부한 땅이다. 일만 팔천에 달하는 신들과 관련한 풍부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신화의 섬’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로마 신화가 기록신화로 세계의 중심이라면 제주신화는 구비신화로 세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³⁾ 또한 현재 남아 있는 민요·무가·설화는 한국의 중심부라 해도 손색이 없다. 제주도 곳곳에는 360여개의 당이 존재하며, 500여 편에 이르는 신화가 서사무가를 통해 전승되고 있다. 제주신화만이 가지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한국의 신화는 대개 하늘의 신이 인간세계에 하강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제주신화는 땅에서 솟아난 신과 바다를 건너 온 신의 이야기가 대등하게 나타난다. “남신이 땅에서 솟아났다면 여신은 바다를 건너온 신인 경우가 많으며, 한반도가 대륙 문화적 속성이 강하다면 제주는 해양 문화적 속성이 강한 것”⁴⁾에서 제주의 해양문화는 해양교류를 통해 형성된 문화이며, 신화 또한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해양문화의 전통은 탐라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탐라국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1105년(고려 숙종 10년) 탐라군(耽羅郡)이 설치되면서 막을 내렸으며”⁵⁾, “원대의 지도에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 고대 국가들, 그리고 통일제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상의 독립을 유지했다는 점”⁶⁾등을 통해 탐라국이 삼국시대부터 고려전기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어느 정권에도 귀속됨이 없이 독자적인 영역을 유지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

3) 허남춘, 『제주도본풀이와 주변신화』, 서울: 보고사, 2013, p.25 참조.

4) 허남춘, 『제주 신화 속의 해양교류와 해양문화』, 『탐라문화』 5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6, p.8.

5) 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 역사 탐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p.33.

6) 김치완, 『화엄(華嚴)의 세계관을 차용한 제주문화공간 분석』, 『탐라문화』 5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6, p.121.

다. 탐라가 다른 지역 또는 국가들과 교류를 함에 있어서도 찾아오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교류하였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먼 거리를 운항할 수 있는 수준의 배를 직접 건조하고, 항해하는 기술도 축적”⁷⁾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탐라국 주민들은 소와 돼지 기르기를 좋아하고, 상업 활동을 활발히 한다는 표현은 자주 나오지만, 농사를 짓는다는 표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교역을 할 때 조개류, 전복 등의 해산물을 비롯한 각종 특산물을 내다 팔고, 식량과 각종 생활 도구들을 사들였다”⁸⁾는 점은 제주가 지닌 해양문화의 역사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독립국가로서 해양문화의 전통 속에 있던 탐라국이 중앙정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 탐라국의 신화도 한반도 내륙의 천강신화에 동화되게 된다. “탐라국 신화(삼성신화)는 고대국가 형성기의 신화로서 땅에서 솟아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는 반면, 한반도 고대국가 건국세력의 등장은 대부분 하늘(천상계)에서 비롯되었다.”⁹⁾ 이처럼 탐라국과 한반도 고대국가간에 이루어진 문명교류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문명간의 교류로서, ‘서로의 다름’이야말로 문명교류의 전제인 동시에 필수적인 요인”¹⁰⁾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주가 지나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북방계문화와 남방계문화라는 두 개의 서로 이질적인 문화형질의 만남은 문화적 측면, 특히 신화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제주도처럼 공간적으로 고립된 섬 지역인 경우 자연환경의 영향은 보다 직접적인 것”¹¹⁾이 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제주신화는 제주의 자연환경이 만

-
- 7) 김일우, 『제주사람들의 海上活動과 그 유형(고려시대 이전을 중심으로)』, 『제주해양포럼』, 대한민국해양연맹, 2004, p.73.
 - 8) 조성운, 『제주도 해양문화 전통의 단절과 계승』, 『탐라문화』 4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p.80.
 - 9) 허남춘, 『제주 신화 속의 해양교류와 해양문화』, 『탐라문화』 5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6, p.10.
 - 10) 정수일, 『고대문명교류사』, 서울: 사계절, 2001, p.30.
 - 11) 김정숙, 『제주신화에 내재된 다문화 요소』, 『교육과학연구』 18권 1호,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16, p.47.

들어 낸 삶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반도 남단의 절해고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기인하는 제주의 자연환경은 제주문화를 읽어내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인류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처한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문화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절해고도가 지니는 폐쇄성과 비·바람·척박한 토양 등 불리한 생활환경 등은 제주민들로 하여금 신을 찾게 하였을 것이며, 이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하였을 것이다. 제주가 ‘일만 팔천의 신들의 섬’이 된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제주도민은 신화나 설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만의 독특한 민간신앙을 형성하였다. 열악한 조건에서의 삶은 제주도민을 종교적인 삶을 살게 하였으며, 여기에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일만 팔천의 신들의 영향으로 나타난 민간신앙이 있었던 것이다.

내륙과 달리 민간신앙이 풍부하며 이의 전승이 왕성하게 이루어진 데에는 절해고도가 가지는 폐쇄성과 해양도서가 지니는 개방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제주 이외의 지역이 유·불이라는 문화적 영향을 받은 것과는 달리 제주는 지정학적으로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들 문화의 영향력은 미약한 편이었다. 반대로 남방계 문화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 외래문화의 유입은 전통적인 고유문화의 기반에다 외래적 문화요소의 융섭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오랜 기간 전승되어 제주도민의 생활감정에 이입되었고, 이것이 제주만의 독자적인 문화로 정착하게 되었다. 문화는 “한 인간집단의 생활양식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찾아볼 수 있는 관습적인 행위와 그런 행위의 산물”¹²⁾이기 때문이다.

문화와 생활양식이 도서형(島嶼型)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 하에 위치한 제주도는 척박한 자연환경과 가족제도 그리고 신화와 전설 등 제주도민의 독자적인 의식구조 등에 의해 육지와는 다른 형태의 주거환경이 형성되었다. 주거환경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며, 인간생활 중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¹³⁾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의 전통민가는 제주도민

12) 한상복 외, 『문화인류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pp.74-75.

13) 조인숙, 「주거환경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11.

의 세계관을 함축하여 표현한 것으로 주거형태가 단순히 실용적, 물리적 측면의 기능 강조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사상과 신앙형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민가를 해석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제주전통민가는 제주의 민간신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제주의 민간신앙은 오랜 기간 전해져 내려온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문화의 저변을 형성시켜온 지배적 사상이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 되는 주거와 밀접한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앞서 논의되어진 절해의 고도라는 사실과 척박한 토양, 가혹한 기후 등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모두 신에게 의지하며 행복을 기구할 수밖에 없었던 신앙인으로서의 제주도민이 있는 것이다.

3. 경험공간으로서의 전통민가와 주거문화

“건축은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¹⁴⁾ 그렇다고 하여 단순히 지붕과 벽과 바닥만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건축은 “인간의 희망과 욕망, 주어진 땅의 포용력을 ‘번역’하는 행위”¹⁵⁾이기 때문에 지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합의를 이끌어낸다. 그렇게 본다면, 건축은 혹독한 자연환경으로부터 스스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공간에 전해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인간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주거형태의 구성이 단순히 물리적 현상에만 국한되어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족관계와 사회구조 그리고 신화와 종교 등 모든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전통민가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그 사회의 저변을 형성하던 민초들의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주거형태로서 당시의 문화현상을 잘 보여준다. 인간이 만든 공간에 시간의 흐름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14) 김광현, 『건축 이전의 건축, 공공성』, 서울: 공간서가, 2014, p.234.

15) 위의 책, p.33.

<그림1> 성읍 고평오 가옥 전경¹⁶⁾

<그림2> 고평오 가옥 안거리와 밖거리

제주도는 내륙지방과는 다른 독특한 유형의 주거문화를 가지고 있다. 초가는 별동(別棟) 형식으로 배치하며, 주위 지형보다 낮게 돌담을 두른다. “건물구성이 안거리 한 채와 부속채로 이루어진 집을 외거리 집이라 하며, 안거리·밖거리를 갖춘 두 채의 집을 두거리 집이라 한다. 이때 안거리와 밖거리는 마당을 중심으로 이자(二)로 마주 보기도 하고, 때로는 튼 ‘ㄱ’자, 튼 ‘ㄴ’자형으로 배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배치의 배경에는 무속신앙, 풍수지리, 기후 그리고 제주도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가족제도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이 깔려있다.”¹⁷⁾

제주민가의 형태는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제주 특유의 경관인 현무암 돌담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적당한 간격으로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 중 제주도 민가의 주건물인 안거리는 다시 2칸형, 3칸형, 4칸형으로 분류하며, 이중 3칸형을 기본형, 혹은 표준형이라 한다. 주요구성요소는 “정지, 상방, 구들, 고팡, 챗방 등이며, 기본형은 정지(부엌), 상방(마루), 구들(온돌방)의 배열을 기본”¹⁸⁾으로 하고 있어 한반도의 민가형식과는 근본적으로 차이

16)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858번지(중요민속자료 69호: 1979. 1. 23 지정됨.). 이 가옥은 현 거주인 고평오(高平五)씨의 증조부가 1829년(순조29)에 건립한 초가로서, 안거리와 밖거리, 목거리(헛간채) 및 대문간이 갖추어진 집이며, 안거리는 제주도의 전형적인 작은 구들 없는 3칸집이다.(2016.1.5. 촬영함.)

17) 이창희·박정근, 『제주지역 전통주거건축의 자연친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6권 2호, 한국농촌건축학회, 2014, p.36.

18) 정영철·이해성, 『제주도 전통민가의 형성과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7권 3호, 대한건축학회, 1991, p.118 참조.

를 보인다. 건축은 “인간의 마음을 기술로 번역해 주는 행위로서 사는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까지 관여하기”¹⁹⁾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안거리와 밖거리로 나뉘는 집의 구조이다.

안거리와 밖거리가 분리된 살림집은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아들이 혼인을 하게 되면 부모세대는 안거리에서, 아들세대는 밖거리에서 살게 된다. 그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부모와 아들세대가 주거를 바꾸어 부모세대가 밖거리로 이주하고, 아들세대가 안거리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는 집안을 주도하는 세대의 변화를 의미한다. 성별로 주거공간을 분리하여 안채를 여성공간, 사랑채를 남성공간으로 사용하는 타지역과는 달리 세대별로 안거리와 밖거리의 주거공간을 분리하여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구성하게 하는 것이 제주만의 독특한 주거양식이다.

안거리와 밖거리에는 각각 상방, 구들, 정지, 고팡, 챗방, 난간 등이 있지만,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일(상방), 제사를 준비하는 일(정지), 제수용 제기를 보관하는 일(고팡) 등은 안거리에서만 할 수 있다.”²⁰⁾ 제사를 지내는 상방, 제사를 준비하는 정지, 제수용 제기를 보관하는 고팡 등의 중요공간을 안 거리에 배치함으로써 안거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중요성이 강조되는 안거리를 부모세대가 결혼한 자식세대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보다 나은 미래를 희망하는 새 세상에 대한 염원이 담겨져 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희망했던 제주도민의 삶의 수고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제주전통민가의 특징은 대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문은 ‘출입하는 통로’이다. 이것은 “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문에는 주인격인 신이 있다.”²¹⁾고 믿어진다. 여기에는 신성한 공간인 내부를 외부로부터 보전하려는 의미가 강하며, 문이라는 매개장치를 통해 각각의 공간은 그들만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하나의 공간이 단순한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인간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소우주로서의 의미

19) 김광현, 앞의 책, pp.31-32 참조.

20) 이창희·박정근, 앞의 글, p.37.

21) 최명립, 「문(門)을 둘러싼 의례와 신앙」, 『남도민속연구』 제16집, p.261.

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은 “직관된 것이며 주관적인 것”²²⁾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주관자의 의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공간은 생활공간에 지나지 않지만, 종교적 의미부여가 발생하는 공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종교체험을 통해 신관이 형성되며, 여기에 더 많은 종교적 의미가 담겨지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문은 세속적 공간인 외부세계에서 신성한 공간인 내부세계로 들어오는 열려진 개구부(開口部)로서 외부의 물리적 위협에 대한 방어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잡귀나 병 등과 같은 위협을 차단시켜주는 심리적 보호물”²³⁾ 역할을 한다. 대문이 집안과 집밖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공간을 경계 짓는 기준이 됨으로써, 성과 속, 안과 밖의 공간에 대한 구분과 각각의 공간에 대한 의미 부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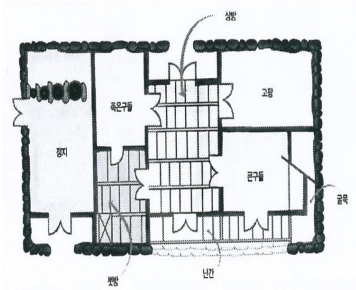
그러나 제주전통민가에서의 대문은 내륙지방의 그것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내륙지방의 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문은 제주에서는 정주목과 정낭이 그 기능을 대신한다.

그렇다면 제주의 민가에서 대문은 어디에 위치하며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제주 전통민가에서의 대문은 ‘상방’의 출입문을 지칭한다. 상방은 一자형 겹집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는 제주전통민가의 중앙에 위치한 마루방을 말한다. 이 상방을 중심으로 ‘큰구들과 작은구들’, ‘챗방과 고평’, ‘마당과 안뒤’ 등으로 출입할 수 있다. 집안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상방의 앞쪽을 문으로 해야 함으로 이 문을 대문이라 하며 대문은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개구부(開口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된다. 이 대문을 문전신(門前神)이 주관하고 있다.

22) 백중현, 『존재와 진리』,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0, pp.152-153 참조.

23) 나경수 외, 『가택신앙을 통한 한국전통주거공간의 의미 해석』, 『호남문화연구』 제28집,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2001, p.211.



<그림 3> 안거리 네칸집 평면도²⁴⁾



<그림 4> 성읍 조일훈 가옥²⁵⁾ 안거리

제주에서는 집안의 모든 곳으로 출입이 가능한 상방의 문인 ‘대문’과 이 문에 좌정한 ‘문전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전제 이외에 명절에 지내는 차례를 포함한 모든 제사상을 상방의 대문 앞에 차리고 제사를 지낸다. 집안에서 굿이 진행될 때 반드시 문전본풀이를 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전신이 좌정한 상방은 제주전통민가의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공간으로서 의례의 의미적 위상”²⁶⁾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주택과 마당의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공간적으로도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개인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집단으로 살아간다. 제주도민들은 제주민가가 가지는 문화적 요인 등을 기반으로 서로를 결속하고 유대감을 형성하였다. 특히 제주전통민가의 안거리와 밖거리를 통한 세대 내의 평등에 대한 강조는 다른 계층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수반하였으며, 이러한 가족 공동체 문화는 삼무(三無: 도둑, 거지, 대문이 없는)의 지역 공동체 문화로 연결되었다. 제주전통민가의 공간배치 속에 내재된 평등의식은 공동체와 물질적·비물질적인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강화해 나갔던 것이다.

24) 이창희·박정근, 앞의 글, p.37

25)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872번지(중요민속자료 68호: 1979. 1. 23 지정됨.). 이 가옥은 현 거주인 조일훈(趙一訓)씨의 할아버지가 1901년에 건립했으며, 집은 안거리, 밖거리, 목거리(헛간채) 및 대문간이 안마당을 중심으로 ㄱ자형으로 구성되어있다.(2016. 1. 4. 촬영함.)

26) 김형준,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전통주택의 경계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3권 제3호, 대한건축학회, 2007, p.182.

4. 기억공간으로서의 신화와 제주도민의 종교심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의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84 퍼센트(2009년 말 기준 57억명)가 조직된 종교에 속해 있다. 카톨릭 신도 절반을 포함해서 기독교가 20억 명, 무슬림은 10억이 넘고, 힌두교는 8억 5천만 명, 불교는 거의 4억 명이며, 민속종교가 남은 수억 명의 신도를 차지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만여 개의 종교가 존재한다.”²⁷⁾고 한다. 종교가 인간 본성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동체에서의 종교적 행동이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공통의 정서와 가치를 표현하고 전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주전통민가에는 거의 모든 장소에 신이 좌정해 있어 그 신앙의 형태와 내용은 매우 복잡하지만, 주거공간과 관련해서는 상방, 마당, 큰구들, 부엌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비중있게 다루지고 있다.

민가의 모든 장소에 좌정해 있는 신과 관련해서는 <문전본풀이>가 이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다.²⁸⁾ <문전본풀이>의 서사전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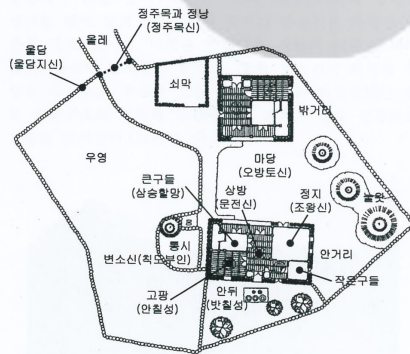
“남산고를 남선비와 여산고를 여산부인이 부부가 되어 아들 일곱형제를 낳고 살았다. 집이 매우 가난하므로 부인의 권유에 따라 남선비는 배를 타고 쌀장사를 떠났고 배는 오동나라 오동고을에 닿았다. 그 고을의 간교한 여인 노일대제 귀일의 딸은 갖은 아양으로 남선비를 꼬여 부부가 되고, 가지고 간 돈을 다 털어먹고 남편을 학대하였고, 남선비는 눈이 어두워졌다. 기다리다 지친 여산부인은 남편을 찾아갔으나 남편은 본처를 알아보지 못했다. 본처는 쌀밥을 하여 남편에게 대접하고 본처임을 알렸다. 이를 본 귀일의 딸은 시기 끝에 본처를 꼬여 목욕하러 가서 물에 밀어 넣어 죽여버리고 본처인 양하여 남편과 같이 고향에 돌아왔다. 부모를 맞은 일곱 형제는 친어머니를 의심하였고 이를 안 계모는 일곱 형제를 죽여버릴 흉계를 꾸며 배가 아파 죽겠다고 뒹굴며 남편더러 점을 쳐 오라고 했다. 지름길로 먼저 간 계모는 점쟁이

27) Michael Shermer, *The Believing Brain*, 김소희 역, 『믿음의 탄생』, 서울: 한국물가정보, 2014, p.229.

28) ‘문전제’ 외에 ‘조왕제’와 ‘칠성제’ 또한 제주전통민가의 공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문전제’에 한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인척 하여 일곱 아들의 간을 내어 먹어야 낫겠다고 점괘를 내렸다. 아버지가 칼을 가는데 똑똑한 막내아들이 이를 알고 그 칼로 형들의 간을 내어 오겠다고 하여 형들과 산으로 가서 멧돼지 새끼 간 여섯 개를 내어 계모에게 주었다. 먹는 척하며 자리 밑으로 숨기는 계모를 문틈으로 본 막내아들은 그 간계를 만천하에 공개했다. 음모가 드러난 계모는 변소로 도망가 목매어 <변소신>이 되었고, 체면 없는 아버지는 도망가다 <정낭>에 목 걸려 죽어 <정주목·정살지신>이 되었다. 아들들은 서천꽃밭에 가서 환생꽃을 얻어다 죽은 어머니를 살리고 부엌의 신 <조왕>으로 앉히고, 위로 다섯 형제는 집안을 오방(五方)에서 지키는 <오방토신(五方土神)>이 되고, 여섯째는 뒷문의 신인 <뒷문전>이 되고, 똑똑한 막내동생은 상방의 앞문신인 <일문전(문전신)>이 되었다.”²⁹⁾

<문전본풀이> 서사는 ‘가족 관계 형성 - 가족 관계 파탄 - 가족 관계 회복’이라는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문전본풀이>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가족구성원으로서 중국에는 모두 신이 되어 주거의 각 영역을 담당하게 된다. <문전본풀이>의 인물들 모두가 제주민가의 공간과 일대일의 대응구조를 지닌다는 점에서 <문전본풀이>는 제주전통민가가 가진 의미구조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문전본풀이>가 자신의 유래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5> 문형행 가옥,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제주도지정 민속자료 3-8호.

29)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서울: 집문당, 2002, pp.260-261.

문전본풀이에 등장하는 가신에 대한 의례는 보통 큰굿이나 제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전제는 음력 정월에 택일을 하고 심방을 빌어서 집에서 행하는 신년제로서 일년의 행운을 기원하는 성격을 지닌다.

‘문전(門前)’이란 ‘문 앞’의 뜻이 아니라 <문전본풀이>에 등장하는 막내의 신격을 지칭하는 것으로 가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신(門神)을 일컫는 말이다. 문전신은 주택내의 최고신으로서 안거리의 진출입구인 상방의 안쪽 문인 ‘대문’에 머무른다.

<문전본풀이>에 등장하는 신은 모두가 가신(家神)으로 여산부인과 일곱아들은 상방을 중심으로 좌정하고 있으며, 남선비와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각각 정주목과 측간에 위치하고 있다. 여산부인과 일곱아들은 가족관계의 회복³⁰⁾을 통해 집의 중심이 되는 상방을 중심으로 위치하지만, 가족의 위기를 초래한 남선비와 여산부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상방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위치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이 여산부인이 조왕신으로, 그리고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측간신이 되어 한 집안에 같이 좌정하고 있는 점이다. 여산부인을 죽음으로써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던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집밖이 아닌 집안에 좌정시킨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부엌과 측간은 인간의 삶과 분리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이다. 가족에게 양식을 제공하며, 불을 통해 밝은 세상을 상징하는 부엌과 부엌에서 나온 재를 버리고 배설이 이루어지며, 어둠으로 상징되는 측간이라는 공간을 한 울타리 안에 배치한 것은 부엌이 식욕을 해결하는 공간이며, 측간이 배설욕구가 해결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두 곳 모두 인간에게 중요한 장소임에 틀림이 없지만 집안을 구성하는데 무엇보다 부엌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

30) “일곱형제는 죽은 어머니를 찾자고 오동나라에 가서 주천강 연못의 물을 푸고 보니 어머니는 떠난 남아 있으므로 서천꽃밭에 가서 살 오를 꽃, 피 오를 꽃, 말할 꽃, 웃음 웃을 꽃, 환생꽃 등을 따다가 어머니 시신 위에 놓아 살려 내고, 항상 추운 물속에만 있었으니 따뜻한 부엌의 신 조왕으로 들어서게 했다.”(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서울: 집문당, 2005, p.130.)

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신을 희생했던 여산부인을 부엌의 신으로 좌정케하여 가족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존재로 하였으며, 측간 역시 집안을 구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장소이기 때문에 한 가족을 위협했던 노일제대귀일의 딸도 변소의 신으로 가족의 일부³¹⁾로 받아들이고 있다. 악행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아 측간신으로 좌정함으로써 대립과 결핍의 구조가 화해와 상생의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민들에게 있어 전통민가는 가신과 소통하는 공간이며, 민가의 공간들간의 경계는 단순한 물리적 경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초자연적 존재와의 조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은 그 시대의 문화, 역사 및 사상 등이 자연환경과 결합되고 또한 기능적 요구에 부합하여 만들어진 소산물이며, 여기에는 종교적 상징성마저 부여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전통민가는 제주도민의 정신적인 부분과 무의식의 부분까지 관여하는, 인간과 신의 유기적 관계형성을 위한 종교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종교적 행위는 배워진다.”³²⁾ 이 말은 종교적 지식과 의례, 믿음 등은 태어남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교육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언어와 종교를 배우는 타고난 ‘학습 본능(innate instinct for learning)’”³³⁾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앞선 세대에게는 다음 세대에게 종교적 가르침을 전할 종교적 책임이 주어진다. 종교적 사회화 과정은 다음 세대에게 종교적 감정과 의식, 믿음을 전하는 과정으로 자연과 초월적 존재에 대한 외경과 그 속에 깃든 정신과 삶의 지혜를 전승함으로써 사회가 유지·지속 가능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다.

종교는 “설명(explanation)이 아니고 체험(experience)”³⁴⁾이다. 역사의 전승 과정에서 제주민들은 <문전본풀이>와 ‘문전제’라는 체험을 통해 주거공간에서

31) 성정희,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가족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 『겨레어문학』 제45집, 겨레어문학회, 2010, p.78.

32)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경기파주: 나남, 2006, p.503.

33) Nicholas Wade, *The Faith Instinct*, 이용주 역, 『종교유전자』, 경기파주: 아카넷, 2015, p.21.

34) 오강남, 『종교란 무엇인가』, 경기파주: 김영사, 2013, p.91.



<그림 6> 제주도 한0면 00리 일대

초자연적 존재와의 조화를 꾀하였다.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은 모든 문화의 보편적 현상”³⁵⁾으로, 제주도민들이 가졌던 제주민가의 공간배치 속에 투영된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림 6>에서 보듯이 제주외곽 지역의 개량주택들은 제주전통민가

의 골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안거리와 밖거리의 민가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현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가족해체 현상으로 안·밖거리 거주 양상은 많이 사라졌지만 지금도 ‘문전제’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며, 아파트 거주민의 경우에도 명절 차례와 제사, 그리고 입주고사를 지낼 때, 안방 문 옆에 문전상을 차려 문전제를 지내고 있다. ‘문전신’에 대한 의례를 통해 과거의 종교심이 현재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제주전통민가와와의 연관성은 미약하지만 제주도민들이 가지는 종교심 즉, 자연에 대한 외경과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외경의 모습을 제주에만 존재하는 ‘신구간(新舊間)’이라는 세시풍속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신구간은 오래 전부터 제주의 민간에 내려오는 풍습으로 “변소 개축, 집수리, 이사 등을 ‘신구간’, 즉 대한(大寒) 후 5일부터 입춘(立春)전 3일 사이에 하는 풍습”³⁶⁾을 말한다. 이 또한 자연에 대한 외경과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외경의 한 모습인 바, 현

35) Michael Shermer, *The Believing Brain*, 김소희 역, 앞의 책, p.234.

36) 윤용택, 「제주섬 생태문화의 현대적 의의」, 『탐라문화』 3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p.329.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 사이에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지상의 일을 관장하던 신(舊官)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새로 임명받은 신(新官)들이 내려오므로, 이 기간(新舊間)에는 지상에 신이 없기 때문에 신이 두려워서 못했던 일들을 해도 아무런 탈이 없다.”<진성기, 「新舊間과 民俗信仰」, 『국어국문학』 34·35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67, p.211.> 실제 2차 현지답사기간 중 전자상가와 가구매장 등에서 ‘신구간맞이 대바겐세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신구간’을 대하는 제주도민의 종교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까지 이르고 있는 이러한 종교심을 통해 제주도민들에게 종교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제주도민은 신화나 설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만의 독특한 민간신앙을 형성하였으며, 전통민가의 공간배치 속에서 민간신앙을 통한 신과 인간의 관계맺음을 추구하였다. 종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존재한다는 믿음과 그 질서에 조화롭게 순응하는 것”이며,³⁷⁾ 종교의 핵심이 구원론적 기능(soteriological function)에 있다면, 겉모습이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비록 소박한 수준일지라도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가 가지는 순기능일 것이다. “종교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규칙을 제시했고, 그 결과 사회는 조직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³⁸⁾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민의 삶에서 발견되는 민간신앙의 양상은 제주도민의 삶 속에 영원히 지속될 종교심의 모습으로 존재할 것이다.

5. 나가며

제주전통민가의 공간들은 제주신화에 나타난 의미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제주전통민가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민가라는 공간에 거주하는 거주인일 뿐만 아니라 신화와 신앙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공간성과 신앙심 사이에서 소통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전통민가에 종교적 의미부여가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제주 전통민가가 가지는 특징으로서, 내륙지방의 전통주택이 임원경제지나 택리지 등의 조영원리나 성리학의 규범에 따라 공간구성이 이루어지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공간조영원리보다는 신화와 민간신앙이라는 의미구조에 따라 공간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제주만의 독자성을 발견할 수 있다.

37) William James,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김재영 역,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서울: 한길사, 2000, p.113.

38) Nicholas Wade, *The Faith Instinct*, 이용주 역, 앞의 책, p.15.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개별 공간들이 가신(家神)들에 의해 상방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간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은 제주민가에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이 물리적 의미뿐만 아니라 신화적 의미가 동시에 연동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른 성격의 물리적 영역을 공간적 단절 없이 소통의 장으로 연결하고 있는 비경계의 공간성은 안과 밖이라는 단절의 공간을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민간신앙은 사회구조와 사회변동 그리고 사회문화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현된다. 그러므로 제주도의 민간신앙이 역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전승되었다는 것은 제주도민의 독자적인 종교심리와 인식체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제주전통민가에 투영된 종교심을 살펴봄에 있어 민간신앙은 중요한 코드가 된다.

화산섬 제주도는 그 지형과 자연자원의 우수성을 세계로부터 널리 인정받게 됨으로써 유네스코로부터 2002년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2007년에는 세계자연유산으로 그리고 2010년에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음으로써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의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과학분야의 3관왕 타이틀은 분명 유의미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자연경관만큼은 세계 어디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 세계인의 뇌리에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세계인들이 제주를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자연환경이 가져다 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자연환경이 가져다 준 결과물로서의 3관왕 타이틀에 환호할 것이 아니라 문화의 보고로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토양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있다.

그리스·로마 신화가 기록된 것으로 세계최고라면, 제주신화는 구술되어 전하는 것으로 세계최고이며, 그리스·로마 신화가 책 속에 갇혀있는 신화라면, 제주신화는 현재를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신화이다. 그러므로 일만 팔천의 신이 존재하는 ‘신화의 섬’이었었다는 과거의 기억에 멈춰있을 것이 아니라 전통민가에서 발견되는 신화적 요소와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민가의 구석구석에서 인간과 소통하며 유기적 관계맺음 속에 있음을 설명해야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신화가 살아 숨쉬는 ‘신화의 섬’으로서 세계인으로 하여금 상상력을 발휘하게 해

야 한다. 신화는 인간으로서 겪는 곤경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인들이 원하는 ‘치유’에 가장 적합한 것이 ‘신화’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제주신화는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생활양식의 일부로 흡수되어 제주문화의 저변을 형성해 왔으며, 제주도민의 생활 속에서 현재까지도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광현, 『건축 이전의 건축, 공공성』, 서울: 공간서가, 2014.
 백중현, 『존재와 진리』,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0.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경기파주: 나남, 2006.
 정수일, 『고대문명교류사』, 서울: 사계절, 2001.
 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 역사 탐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한상복 외, 『문화인류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허남춘, 『제주도본풀이와 주변신화』, 서울: 보고사, 2013.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서울: 집문당, 2002.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서울: 집문당, 2005.

Michael Shermer, *The Believing Brain*, 김소희 역, 『믿음의 탄생』, 서울: 한국물가정보, 2014.

Nicholas Wade, *The Faith Instinct*, 이용주 역, 『종교유전자』, 경기파주: 아카넷, 2015.

William James,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김재영 역,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서울: 한길사, 2000.

2. 논문류

- 김정숙, 「제주신화에 내재된 다문화 요소」, 『교육과학연구』 제18권 1호,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16, pp.43-72.
 김일우, 「제주사람들의 海上活動과 그 유형(고려시대 이전을 중심으로)」, 『제주해양포럼』, 대한민국해양연맹, 2004, pp.109-145.
 김치완, 「화엄(華嚴)의 세계관을 차용한 제주문화공간 분석」, 『탐라문화』 51호, 제주대학

- 교 탐라문화연구소, 2016, pp.110-146.
- 김형준,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전통주택의 경계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3권 3호, 대한건축학회, 2007, pp.179-186.
- 나경수 외, 「가택신앙을 통한 한국전통주거공간의 의미 해석」, 『호남문화연구』 제28집,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2001, pp.189-221.
- 박희용 외 3, 「제주 전통주거의 건축특성 연구: 성읍민속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권 2호, 한국농촌건축학회, 1999, pp.3-14.
- 성정희,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가족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 『겨레어문학』 제45집, 겨레어문학회, 2010, pp.65-85.
- 이창희·박정근, 「제주지역 전통주거건축의 자연친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6권 2호, 한국농촌건축학회, 2014, pp.35-44.
- 윤용택, 「제주섬 생태문화의 현대적 의의」, 『탐라문화』 3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pp.317-352.
- 정영철·이해성, 「무속의례를 통해 본 제주도전통주거의 공간구조 및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7권 1호<통권33호>, 대한건축학회, 1991, pp.73-85.
- _____, 「통과의례로 본 제주도전통주거공간의 경계 및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7권 2호<통권34호>, 대한건축학회, 1991, pp.83-95.
- _____, 「제주도 전통민가의 형성과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7권 3호, 대한건축학회, 1991, pp.113-122.
- 조성윤, 「제주도 해양문화 전통의 단절과 계승」, 『탐라문화』 4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pp.41-99.
- 조인숙, 「주거환경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진성기, 「新舊間과 民俗信仰」, 『국어국문학』 34·35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67, pp.471-473.
- 최명림, 「문(門)을 둘러싼 의례와 신앙」, 『남도민속연구』 제16집, 남도민속학회, 2008, pp.255-283.
- 허남춘, 「제주 신화 속의 해양교류와 해양문화」, 『탐라문화』 5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6, pp.7-41.

논 문 접 수 일	2016년 10월 30일
심 사 완 료 일	2016년 11월 12일 ~ 2016년 11월 21일
게 재 확 정 일	2016년 11월 25일

Abstract

A study on the Citizens of Jeju Island on Religious Mind through the Space
Arrangement of the Traditional Houses in Jeju

Kim, Yeong-Joo

The composition of Jeju's dwelling pattern is not simply limited to the physical phenomenon, but rather it has been made based on a lot of social and cultural factors like social structure, family relationship, myth or religion. Especially the traditional village has showed us the cultural phenomenon on Jeju at that time because it was the dwelling pattern of the people on Jeju reflecting on their lifestyle.

The space on the traditional village has been closely related with the structure of the meaning represented on Jeju's myth and rite. It had helped Jeju have its unique folk belief based on the myth and folk-tale and had pursue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god through their folk belief represented on the placement of the space and house. The people dwelling on the traditional village had played on a role as residents, believers living on between myth and folk belief or messengers living on between the space and belief.

The placement of the house in the traditional village inland was affected by the standards of the neo-confucianism or the principles represented on the geographic books like 'Taekriji' or 'Imwonkyeongjeji' while that of the house in the traditional village on Jeju had a its own uniqueness because it had a structure of the meaning based on the myth and folk belief.

The myth was created in order to present a way to get out of the hardship that human beings had experienced and also played a role as a compass to show how they had to live because it could be a best way to heal and cure the modern people's mental and physical sufferings. In this point, the fact that the mythical factors and the god or goddess represented in the myth communicate with human beings would be expected to bring about the structure of the liberal

arts that Jeju island as a repository of the culture has kept.

Keyword Jeju traditional houses, the folk religion, MunjonPonpuri, Myth, religious mind

K C I